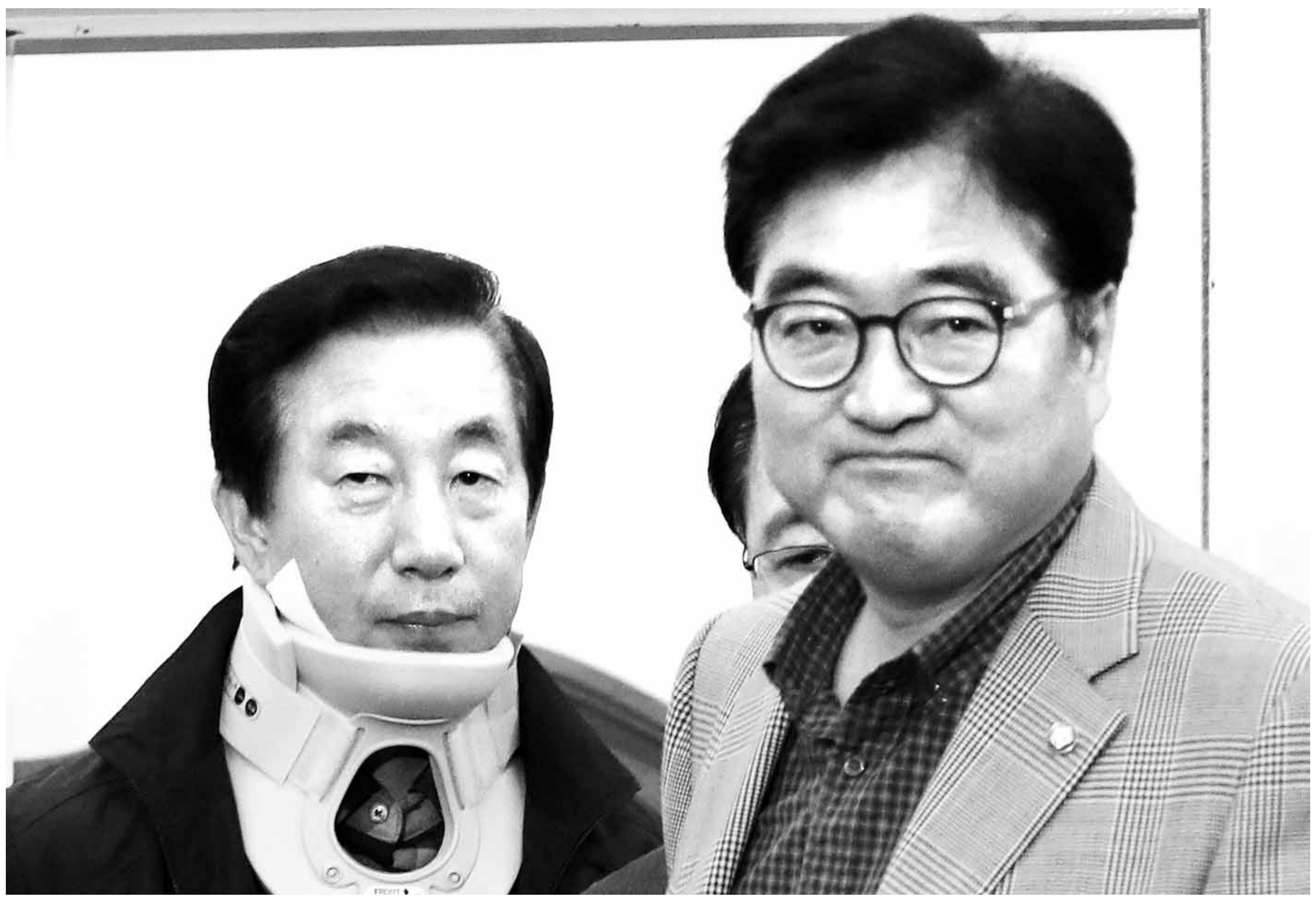
"무조건 특검 안받으면 단식접고 5월국회 끝"

한국당, 오후 2시 최후통첩
민주 "추경과 동시 처리하자"
세가지 조건 특검 수용 의사



또 빈 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또 타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원 댓글 사건(드루킹)에 대한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여러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검 불가를 원칙론으로 앞세웠던 민주당은 이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낸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특검 추천 형식 등을 놓고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태도 변화를 보인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8일 오후 2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쟁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40여 분만에 헤어졌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 24일 동시 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검' 명칭 사용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외에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국민투표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리'를 제안했다.

이밖에 8일 추경 시정연설 실시와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2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의 '8일 처리'와 함께 야당의 온전한 특검 추천을 앞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위 심사 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명무실 특검으로 가자는 꼼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해 "특검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어려운 조건을 단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은 해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며 "국가와 민생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오로지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만들어 정권에 흠집을 낼 생각,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볼 생각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오전 여야 협상 결렬 책임이 '드루킹 사건'의 유명무실한 특검을 들고나온 민주당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곤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8일 오후 2시까지 조건 없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與 새 원내대표 이번주 선출…현안 산적

노웅래·홍영표 11일 경선
8월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오는 11일 선출된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한 달 이상 손을 놓고 있는 국회 상황을 풀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동력을 찾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경선을 4일 앞둔 7일 현재 노웅래, 홍영표 의원 등 2명의 3선 의원이 출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당 안팎에서는 홍 의원이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데다 1년 전 경선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 고배를 마신 뒤 일찌감치 '표 다지기'를 해왔기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홍 의원이 노동계 출신으로서 강성 이미지를 가진 만큼 대야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노 의원이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새 원내대표 앞에는 난제가 쌓여있다. 국회 교착 상황을 풀어야 하는 게 첫째다. 물론 우 원대대표가 야당과 빅딜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지금껏 여야 대치 상황으로 미뤄볼 땐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처리, 각종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도 동반되는 숙제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도 임박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4개의 교섭단체가 있어 여야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말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이달 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대 규칙을 확정하고 지역위와 시도당 개편 대회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께 전준위를 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준위가 구성되면 당헌·당규 분과위를 설치,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오는 8월 꾸려질 새 지도부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이해찬(7선)·이종걸(5선)·김진표·박영선·송영길·설훈·안민석(4선)·윤호중·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 명이 넘는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제1당 유지 '무난'

민병두 사퇴 철회 121석…한국당 강길부 탈당 6석 差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낸 지 54일만에 사퇴 의사를 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은 탈당, 민주당의 제 1당 유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며 "두달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구민 6539분이 뜻을 모아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3월10일 한 여성 사업가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자신으로부터 노래주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그달 12일 국회에 사직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강길부 의원은 6일 "오늘 한국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거취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원내 제 1당 사수와 무관치 않은 문제였다.

일단 민주당은 기존 121석을 유지했지만 한국당은 한 석이 줄어 115석이 됐다. 6석 차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 의원이 사퇴해도 4석 차이가 난다. 애초 우려했던 제 1당 변화는 사실상 불가하게 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광주시의회 청년비례 내일 ARS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오는 9일 ARS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시의회 청년비례대표를 선발한다.

최종후보는 차승세(41) 사회적공동체 다온소셜트리 대표와 최영환(34) 전 광주시체육회 사무장이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의원 청년비례대표를 도입한 광주시당은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의 학력과 정치 경력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면접과정을 그대로 영상화한 자료는 시민선거인단에 제공된다. 선거인단은 후보자들의 정책 영상을 사전에 살펴보고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4만6000건의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각 구별 60명씩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해 총 300인을 구성한 뒤 모든 홍보와 투표 절차는 대행기관에 위탁했다. /오광록기자 kroh@

평화당 광주시의원 여성비례 공개토론회 경선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환)는 7일 "광역의원 여성 비례대표 선정을 위해 후보자 공개 토론회 방식의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여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광역의원 여성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의원 여성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는 이영순 광산구의원, 최강님 큰꿈지역아동센터 대표, 유정심 광주시의원 등이 나섰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토론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토론, 시민 질문 순서로 진행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3명 후보에 대한 토론회 평가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광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도 확정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서구 고선란·조숙정, 남구 김진숙, 북구 김동희·박현희, 광산구 김정자·유형우 등으로 지역위원별 자체 경선을 해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초의원 후보자로 남구 나선거구 위성환, 광산구 라선거구 송경종 후보를 추가 공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개인사정상 급매 – 6200만원
H. 010-6838-1230